

■ 광주비엔날레재단 직원 해외연수 성과

광주작가美 기획전 이끌어내

정진경씨 스미스 소니언 연수중 전시 총괄 조태영씨 日 연수후 '전시지침서' 발간도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 기획전 개최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인적 네트워크의 토대를 다지는 등 직원들의 '내공' 쌓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미술인과의 원활한 인적 교류를 위해 강도높은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첫 시행된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한편, 광주비엔날레를 해외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시팀에 근무하는 정진경(34)씨는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풍경 밖의 기억'을 주제로 해외 기획전을 여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정씨는 스미스 소니언 허쉬먼 미술관에서 보조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이 전시를 위해 작가·전시관 선정, 후원사 협찬 등 일인다역을 소화했다. 당초 지난 15일까지로 예

정된 행사 가오는 29일까지 연장될 정도로 전시 내용도 호평받았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출신 손봉채, 이이남씨를 참여작가에 포함시켜 지역 작가들이 국제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정진경씨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점과 광주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조태영(34)씨는 일본 해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전시기획 실행 및 운영을 위한 전시업무 지침서'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씨는 이를 위해 일본 국립국제 미술관, 모리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과 고베비엔날레 조직위, 교토문화센터에서 3개월간 인턴십 과정과 실무견학 시간을 가졌다.

100여쪽 분량으로 출간될 '전시 기획...' 책자는 일본 선진 미술관의 전시, 조직, 운영, 홍보 등 전 분야의 장·단점을 비교,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 재단 직원 정진경(사진 왼쪽)씨와 조태영씨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뒤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비엔날레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를 담고 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12주년을 맞았지만 전시업무 전반을 규정하는 뚜렷한 업무지침서가 없다는 점에 착안, 해외연수 테마를 선진미술관 사례 조사로 잡았다.

조태영씨는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자가 비엔날레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인 1외국어 습득하도록 지원, 재단내에 외국어 학습실이 일고 있다.

재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대어학원과 삼육외국어 학원을 지정학원으로 선정, 직원 11명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첼리스트 양성원 광주시향 협연

21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금노상)의 공연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협연자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유명 클래식 공연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광주 시향이 초청하는 협연자는 클래식 팬들에게는 관심의 초점이다. 특히 시향 공연은 티켓 가격도 저렴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6월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연세대 음대 교수·사진)씨가 협연 무대를 갖는다. 21일 오후 7시30분 광



주문에회관 대극장, 제 235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서는 양씨는 이번 공연에서 첼로협주곡 쥘 로렌주곡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들려준다. 양씨는 파리음악원과 인디애나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에서 국제적인 솔리스트이

자 실내와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호4중주단원으로 활동했던 양씨는 미국 이스트만 음악 대학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으며 캐나다 밴프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시향은 이날 정기연주회에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사장조'도 함께 들려준다. 흔히 '영국교향곡'으로 불리는 8번 교향곡은 슬라브 민족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친정엄마' 광주 나들이

고두심 연극 컴백작 ... 23·24일 5·18문화센터 민주홀

'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 고두심의 연극 컴백작으로 화제를 모으며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연극 '친정엄마'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4·7시, 24일 오후 3시·6시 5·18문화센터 민주홀.

2004년 출간후 20만부가 판매된 방송작가 고혜정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수필집을 원작으로 하는 '친정엄마'는 가장 살가운 존재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애정 표현이 서투른 딸과 무한한 애정을 쏟아주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친정엄마'는 자식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엄마의 사랑과 낙천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엄마의 모습을 때론 유쾌하게, 때론 가슴 정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울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딸

주희는 대학시절 집을 떠난 후 엄마와 얼굴도 서로 자주 못보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 엄마는 딸이 사춘기 때 문제로 전화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 일 때문에 바쁜 주희는 엄마가 귀찮기만 하다.

주희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자 엄마는 애 키우며 일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의 집으로 자주 올라오는데... '친정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고두심의 열연이 돋보이며 MBC 주말드라마 '문화'에서 주인공 문화의 시어머니로 출연중인 성병숙(24일 오후 3시)이 어머니 역으로 더욱 캐스팅됐다.

딸 주희 역으로는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 등에도 출연했던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 장영남과 서은경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5천원, 4만5천원. 문의 1544-04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경계

광주 도예 정예작가 초대전

28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강남구 21~27일 광주신세계갤러리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구씨가 오는 21~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강씨는 12회째를 맞는 개인전에서 '공간-경계', '공간-생명력' 등 삶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사물과 자연을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하늘과 바다, 농토와 하늘 등을 흐릿한 흑백 화면과 같은 화폭에 담아 관람객들을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끈다.

10여년 동안 꽃 그림을 고집해온 그는 꽃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배경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 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강씨는 "그림 속의 꽃은 눈에 보이는 꽃이 아니



'공간-경계'

라, 꽃의 형태와 향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고 설명한다.

조선시대 미대를 졸업한 뒤 동경국립조형문화 트리엔날레, 'A 대한민국전', 국제교감예술제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재호 작 '떡살문'甬'

광주 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광주 도예 정예작가 초대전'이 28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중견 및 청년 작가 28명이 참가,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성이 높은 도예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강광목 강성곤 김경진 김기현 김옥수 김인숙 김창환 김철우 김한섭 라필주 명재현 박재연 김순희 변정옥 손선석 유명준 위승연 정기봉 정덕영 조재호 최희숙 허윤정 이영철씨 등이다. 문의 062-227-133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외 한국문화재 인터넷으로 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자료 정보관 개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해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해외소재 문화재자료 정보관(http://overseas.nriip.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

문화재자료 정보관은 3만4천여 점에 이르는 해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

재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장처의 협조를 받은 4천여 점의 사진과 영상, 설명을 담고 있다.

키워드와 항목별 검색을 통해 쉽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실물을 접하는 것처럼 zoom·zoom이 가능한 가상체험관 코너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독립영화 스타 김종관 감독

23일 광주극장서 '만남의시간'

광주극장은 독립영화계의 스타 김종관 <사진> 감독을 초청, 23일 밤9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부터는 김종관의 대표 단편 영화 '발라드'와 '작품'과 신작들을 함께 묶어 상영한다. 문의 062-225-8850.

movies

이제 영화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에메1544-0600

M관 오션스 13 (12세)	최고급관
2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3관 밀양 (15세)/슈렉3 (15세/한글자막)	
4관 쉬즈더맨 (15세)/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황진이 (15세)	
7관 메신저-죽은 자들의 경고 (12세)	
8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9관 러브 and 트러블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데스위터 (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에메:www.joycbs.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슈렉3 (전체/자막)
2관 <어린이전용관>나루토 (전체/더빙)
3관 슈렉3 (전체/더빙)
4관 슈렉3 (전체/더빙)
5관 러브&트러블 (15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7관 황진이 (15세)/오션스13 (12세)
8관 밀양 (15세)
9관 황진이 (15세)
10관 오션스13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평일 11시~21시, 주말 11시~21시 / 하남점:평일 11시~21시, 주말 11시~21시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 (12세)
2관 러브&트러블 (15세)
3관 슈렉3 (12세)
4관 슈렉3 (12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오션스13 (12세)
7관 밀양 (15세)
8관 데스위터 (15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3관 슈렉3 (12세)
4관 황진이 (15세)
5관 메신저 (15세)
6관 밀양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